

# ‘쏘울’ 연산 20만대 가나

##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사측 증산요구 본격 검토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쏘울 증산에 협조해 달라는 사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노조가 증산 요청을 받아들이면, 광주공장의 쏘울 생산 능력은 현재보다 66% 확대된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12만대로 계획된 쏘울 생산 물량을 20만대로 늘리기 위한 공장 증설 및 혼류생산 방식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 15일 차기 집행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간담회를 갖고 회사측이 긴급현안으로 협의의 요청해온 쏘울 증산 문제를 가능한 빨리 결론 지어 사측에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측은 지난달 28일 쏘울 증산 관련 설명회를 갖는 등 쏘울 증산을 위한 조립라인 증설 등을 노조에 협의

요청했다. 사측 안의 골자는 광주 1공장의 시간당 쏘울 생산대수(UPH)를 37대에서 42대로 늘리는 한편, 스포티지 라인에서도 쏘울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혼류생산제를 도입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자라는 것이다. 이 경우의 광주공장의 쏘울 생산능력은 현재 연산 12만대에서 20만대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사측은 특히 내년부터 쏘울 생산량을 늘리려면 2개 조립라인 신설 등 증축공사에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고 노조의 빠른 결단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쏘울 증산이 신규인력 채용이 아닌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일감이 적은 라인의 인력을 빼내 쏘울 생산라인으로 집중 배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또 사측이 제

시하고 있는 쏘울 증산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그동안 사측의 협의 요청에도 현재 진행중인 차기 집행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산문제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기아차 광주 1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월간 수출량이 1만대가 넘는 등 인기가 치솟아 수출 주문량이 2만대 이상 밀려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원들도 쏘울이 잘 팔려야 광주공장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노조가 의견수렴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쏘울 증산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300만원짜리 자전거

고 있다.

18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1천300만원짜리 자전거를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 제공〉

### 기아차 준대형 세단

### 신차명 ‘K7’



기아자동차는 올해 말 출시할 준대형 세단 ‘VG’(프로젝트명)의 차명을 ‘K7’으로 확정하고 18일 외관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차명 K7에서 알파벳 ‘K’는 기아차(Kia), 대한민국(Korea)의 대표 글자인 동시에 ‘강함, 지배, 통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Kratos’의 첫 글자로, ‘경쟁력 있는 신차로 다른 차들을 압도하고 능가한다’는 목표를 의미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숫자 7은 일반적으로 국내외에서 대형 차급을 의미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 光銀 국제 회계기준 만든다

광주은행은 (주)윌비솔루션, (주)우리금융정보시스템과 함께 관리회계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리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년 7월까지 추진되며 조직 내부 자금흐름에 대한 원가를 측정하는 자금원가(FTP)시스템, 활동기준 원가를 산출하는 업무원가(ABC)시스템, 조직별·상품별·고객별 수익성을 관리하

는 수익관리(PA)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새 관리회계시스템은 은행권 최초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2011년 적용)을 반영한다. 변정섭 광주은행 부행장은 “사업부문별 재무제표 산출 등 체계화된 업적 관리를 통해 성과 문화를 한층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환율·수출주 수급 변수

### 성급하게 추격매도 말라

금통위 이후 금리인상 부담에서 벗어나는 듯 싶었던 국내 증시는 이번에는 환율이라는 변수에 단단히 발목을 잡혀버린 형국이다. 지난주 한 해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빠른 원화절상이 상반기 국내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던 주요 수출업체들의 4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광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감은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국내기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이들은 지난주 IT와 자동차 등 대표적인 환율 민감주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도세를 펼쳤는데, 이달 들어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움직임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화강세에 따른 부담감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들의 경우 금리동결 이후 재개된 대규모 순매수 행진이 지난주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금융주와 소재주에 집중된 반면 기관들의 집중 매도세의 표적이 된 수출주에 대해서는 광망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대규모 외국인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부진한 흐름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금주에도 역시 국내 증시에서의 최대 화두는 환율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수출주에 대한 수급구도의 형성이 될 것이다. 원화 환

율의 지나치게 가파른 평가절상이 심화될 경우에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작용할 여지도 크지만, 지금으로서는 환율의 안정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금주에도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고, 수출주를 둘러싼 기관 및 외국인의 수급구도가 지난주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수의 부정적인 흐름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및 그에 따른 기업실적의 둔화를 둘러싸고 최근 국내 증시에 형성되어 있는 우려감은 다소 과도한 솔림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대대적인 기관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게 대응으로는 소나기를 피하는 편이 낫겠다. 이 경우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주 및 소재나 항공 등과 같은 원화강세 수혜주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환율변수로 인해 단기간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수출주들의 경우 심리적 풀림현상으로 추격매도에 나서기 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분할매수 대응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클린디젤 자동차 18조 경제효과

### 광주시 2016년까지 진곡산단에 부품산업 육성

광주에서 클린 디젤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할 경우 18조2천억원 상당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정학회 등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오는 2016년에 연간 80만대 생산규모의 디젤자동차 산업기반이 조성돼 총생산유발효과 18조2천억

원, 고용인원 3만8천여 명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 디젤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연비가 좋은 디젤로, 이를 이용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와 함께 대표적인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꼽혀 EU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광주시와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부터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인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분부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시는 또 100만대 생산까지 규모의 전기 및 클린 디젤 자동차의 연구개발 시설 및 생산시설 집적화 단지를 오는 2011년 완공될 진곡산업단지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2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본부에서 관련 공청회를 갖는다.

/윤현석기자 chadol@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부 할 것입니다. 2. 보청할 것입니다. 3. 보청기에 만족 할 것입니다.

**국제보청기**

www.kibj.com

본점 062-227-9940

송정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익산점 061-851-2422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장품의 최고선물 인기행!!

**전국 최저가 판매**

상차에 비해 비데 판매가 많이 늘어난 실속 있는 최고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싹쓸하세요!

80-KA150

290,000원

**219,000원**

10% 할인

비데프라자

062-515-1144

무등산 문인정사

**국악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방부모와 당신의 효자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1. 선방부모와 당신의 효자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2. 선방부모와 당신의 효자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3. 선방부모와 당신의 효자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